

NASC

Volume. **11**
News Letter

www.nasc.or.kr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국가회계제도 동향

외국회계제도 동향

2012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변동사항 및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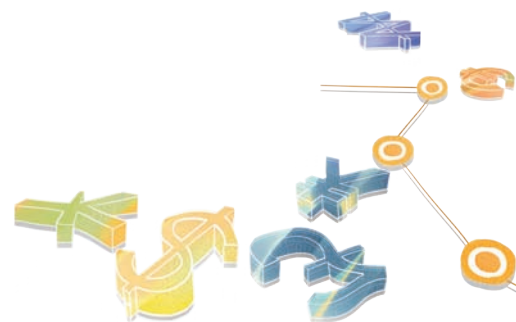
공지사항

NASC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기획재정부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NASC

Volume. **11**
News Letter
www.nasc.or.kr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국가회계제도 동향

외국회계제도 동향

2012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변동사항 및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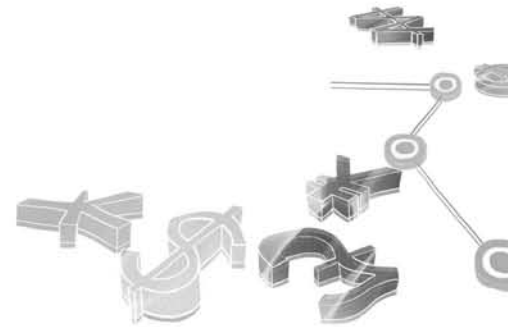
공지사항

NASC 기획재정부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선도합니다.

www.nasc.or.kr





INDEX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국가회계제도 동향

외국회계제도 동향

2012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변동사항 및 유의사항

공지사항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김 은 영 부장 _ 국가회계기준센터 재무통계부장

Tel_02,3149,7564 / e-mail_ ekim@kicpa.or.kr

01

국가회계제도 개혁 백서 발간 및 세미나 개최 (12.13)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기준센터와 공동으로 12월 13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국가회계제도 개혁 백서 발간을 기념하여 「국가회계제도, 새로운 재정개혁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사는 기획재정부 김동연 차관이, 축사는 원혜영, 김동완 국회의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이 맡아 주셨으며, 국가회계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 공인회계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각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세미나의 각 세션 별 주제로는 [세션1] “국가재무제표와 해외사례 비교”, [세션2] “국가회계제도 정착과정에 대한 회고와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이었으며, 이에 관한 주제발표 및 각 세션별 토론으로 이어졌다.

세션1의 첫 번째 주제에서 이태성 재정관리국장(기획재정부)은 「2011회계연도 국가 재무결산 결과 및 향후과제」 발표를 통해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도입경위, 2011회계연도 국가 재무결산 주요내용, 국회 결산심의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분석하면서, 결산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국가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 각 세션별 토론 참여자 >

■ 세션-1 국가재무제표와 해외사례 비교

- ① 2011회계연도 국가 재무결산 결과 및 향후과제
 - 발표자 : 이태성(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 ② 선진국 재무제표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발표자 : 주인기(연세대학교 교수)
- ③ 국가회계기준과 IPSAS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발표자 : 김동수(삼일회계법인)
 - ※ 사회자 :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 패 널 : 김갑순(동국대학교 교수), 박노옥(조세연구원 박사), 배기수(충북대학교 교수), 이종운(감사교육원 교수), 전영순(중앙대학교 교수), 허웅(안진회계법인 이사)

■ 세션-2 국가회계제도 정책과정에 대한 회고와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 백서발간 배경 및 주요 내용
 - 발표자 : 편호범(국가회계기준센터 소장)
 - ※ 사회자 : 김경호(홍익대학교 교수)
 - ※ 패 널 : 권광호(한국장학재단 이사), 박성동(통계청 경제통계국장), 신용인(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부회장), 이경섭((전) 감사원 국장), 이원희(한국정부회계학회회장), 홍형선(예결위 입법조사관)

두 번째 주제에서 주인기 교수(연세대학교)는 「선진국 재무제표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발표를 통해 선진 7개국(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네덜란드, 일본)의 발생주의 회계 운영실태 및 재무 정보 활용사례를 조사·분석하면서, 우리나라 발생주의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주제에서 김동수 회계사(삼일회계법인)는 「국가회계기준과 IPSAS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발표를 통해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과 국가회계기준의 비교분석을 통한 차이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국가회계제도 고도화를 위해 보고일 이후 사건 검토 등 일부 현행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어진 세션2에서는 편호범 국가회계기준센터 소장이 「백서 발간 배경 및 주요 내용」이라는 주제로 백서 발간의 배경, 과정 및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발생주의 회계 도입성과 및 향후 과제로 ① 중앙과 지방의 연계 및 협조, ② 담당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강화, ③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의 강화, ④ 정부회계 전문 자격증의 활성화, ⑤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 개발, ⑥ 원가 관리와 성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각 세션별 발표에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다양한 정부회계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 추진과정 중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02 2012년 국가회계기준센터 최종보고서 보고 회의 (12.14)

국가회계기준센터는 2012년도 최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였다. 최종보고서는 사업현황, 사업실적 및 기타첨부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회계기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의에는 기획재정부(재무회계팀 장문선 과장)와 국가회계기준센터 연구원(김상노 평가분석부장 외 7명)이 참석하였다.

03 국가회계제도 홍보 브로슈어 작성 (12.12)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회계제도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2월에 「국가회계제도 대변혁- 그 시작과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의 홍보 브로슈어를 발간했다. 홍보 브로슈어에는 국가회계제도 개혁과정,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채택한 OECD 선진국 현황,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의 주요 내용 및 국가회계제도 개혁으로 인한 기대효과 등이 그림과 도표로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이 브로슈어는 세미나 등을 통하여 국회, 감사원, 중앙부처, 대학, 회계법인 등으로 배포되어 정부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과정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제 컨퍼런스 참석 (12.17~18)

국가회계기준센터(김은영 재무통계부장과 1명)는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부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Global conference on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by Governments) 국제컨퍼런스(주관 PwC)에 참석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PwC가 전 세계 9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부문 발생주의 회계 도입여부, IPSAS 적용여부, 향후 5년 내 발생주의 회계 도입 계획 유무 및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여부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서의 발생주의 도입 현황, 원가활용, 재무보고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각종 사례를 발표하였다.

아태 재정관리협력체(PEMNA) 고위급 컨퍼런스 참석 (12.6)

국가회계기준센터(김상노 평가분석부장외 2명)는 12월 6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아·태 재정관리협력체(PEMNA: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고위급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이날 「글로벌 경제위기와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 하에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의 장문선 과장은 한국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국가회계제도 개혁에 대해 발표하였다.

201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실시 (11.9, 11.21~23)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기준센터와 함께 11월 9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재무결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수자원공사 대강당에서 2012회계연도 회계 및 결산교육(이하 “전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준정부기관 재무결산 담당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소강당에서 결산 상세사항 및 IFRS 전환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11월 9일의 전체교육에서는 2012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 작성 유의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 IFRS 전환상황 및 주요 이슈 등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2013년 IFRS 전환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및 IFRS 적용 준정부기관 계정체계를 발표하였으며, 추가로 결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교육하였다.

07

FMP에서 주최한 APEC Conference 참석 (11.11~12)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기준센터와 2012년 11월 11일~12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FMP (Finance Ministers' Process)에서 주최한 APEC Conference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APEC 회원국 간 재정시스템의 전망과 발전 방향(Prospects and Directions of Developing Treasury Systems for APEC Economies)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통합재정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08

일본회계사협회(JICPA) 센터 방문 및 토론회 개최 (11.28)



일본공인회계사협회(JICPA, Sekikawa Tadashi 외 5명)는 11월 28일 한국의 공공 부문 회계기준 제정 절차에 대한 리서치의 일환으로 국가회계기준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국가회계제도의 전반적인 개괄 및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소개하고, 향후 양국 간 공공부문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활발한 국제교류에 앞장서기로 했다.

09

국가회계전문교육 강의지원 (11.26~12.11)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는 국가회계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수준별 국가회계전문교육을 시행 중에 있다.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차로 진행된 국가회계전문교육은 일선관서와 기금결산 담당자 및 중앙관서결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류 사례를 포함하여 각 커리큘럼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10

맞춤형 교육팀 운영지원 (11.5~12.9)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외부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맞춤형 교육팀 운영을 지원하였다. 맞춤형 교육은 순회기간에 따라 중간점검 지원과 이슈 해결을 위한 지원업무로 구분하여 각 중앙관서를 방문하여 진행되었으며, 중간점검 항목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중간점검 방법을 지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결산담당자와 인터뷰 및 2011회계연도 감사원, 국회 지적사항 등 이슈 해결 해결을 위한 조치방안 수립을 지원하였다.

11

2012회계연도 결산작성 지침 작성 지원(11~12월)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하는 「2012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과 관련하여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결산작성지침(Ⅲ)(중앙관서 재무결산용) 작성을 지원하였다. 기금, 정부기업특별회계 및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작성양식 등을 포함한 결산작성지침에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의 효율성·정합성 제고를 위해 국회지적사항과 제18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국가 회계처리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12

외국 국가회계 관련 해외자료 번역발간 (11.1)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는 우리나라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정착 및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외국 국가회계 관련 해외자료 번역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12월 중에는 ① 2011회계연도 미국정부 재무제표에 대한 미국 감사원 의회 증언문, ② 2011회계연도 미국정부 재무보고서에 대한 대 국민 보고서, ③ 발생주의 재정수지와 현금주의 재정수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3권의 번역자료집이 발간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 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회계제도 동향

박 보 희 선임연구원_ 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부

Tel_02,3149,7557 / e-mail_ cpabo@kicpa.or.kr

01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11.1)

국가 회계처리지침 개정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11월 1일 국가회계기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1호 안건으로 “용자회계준칙 주요 쟁점사항 및 향후 처리방안”, 2호 안건으로 “현행 회계처리지침 개정사항(안)”, 3호 안건으로 “내부거래제거 대상 제외(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소위원회에는 민간전문위원(위원장 김경호 교수 외 4인), 기획재정부(사무관 윤현석) 및 국가회계기준센터 연구원(평가분석부장 김상노 외 6인)이 참석하였다.

02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11.21)

국가 회계처리지침 개정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11월 21일 기획재정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1호 안건으로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안)”을, 2호 안건으로 “연금충당부채 할인을 결정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8개 지침에 대한 “국가 회계처리지침 개정(안)”을 3호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이날 소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이태성 재정관리국장 외 3명), 민간전문위원(위원장 김경호 교수 외 5명) 및 국가회계기준센터 연구원(평가분석부장 김상노 외 5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우정사업본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에서 참석하여 지침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11.27)

국가 회계처리지침 개정사항 등을 논의하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가 11월 27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는 1호 안건으로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 결과 및 2012회계연도 재무결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2호 안건으로 8개 지침에 대한 “국가 회계처리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공무원과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김동현 차관 외 4명)와 국가회계기준센터 연구원(평가분석부장 김상노 외 6명)이 참석하였다.

연금충당부채 할인율 자문회의 개최 (12.14)

연금충당부채 할인율 산출방안에 대한 자문회의가 재정, 회계, 보험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4일 국가회계기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에서 보간법으로 산출한 할인율을 검토하고, 2012회계연도 결산에 적용할 할인율 산출방식을 논의하였다.



외국회계제도 동향

정 지 웅 선임연구원_ 국가회계기준센터 재무통계부

Tel_02,3149,7558 / e-mail_ jwng113@kicpa.or.kr

01 아시아의 현금주의 IPSAS 채택 현황

1 캄보디아- 캄보디아 공공부문회계기준(CPSAS) 제정

캄보디아는 기존의 현금주의 회계제도에서 발생주의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7년부터 공공부문에 수정발생주의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중단기적으로 2015년까지 현금주의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을 먼저 도입하고 이후 최종적으로 발생주의 IPSAS의 전면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캄보디아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술지원을 받아 IPSAS 및 통합재정통계(GFS :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정과목체계를 수정하여 캄보디아 공공부문회계기준(CPSAS: Cambodian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을 개정하였으며 재정관리정보시스템도 개발하였다.

CPSAS는 주식공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공기업 등 주요 정부기관을 재무보고서 보고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현금주의 IPSAS와 차이점을 보인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IPSAS를 최대한 반영하여, 중단기적으로는 현금주의 IPSAS에 기반한 CPSAS를 적용하며 장기적으로는 2020년부터 발생주의 IPSAS에 기반한 CPSAS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편, 2013년부터 현금주의 IPSAS에 기반한 시범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015년에는 현금주의 IPSAS 기반의 2014회계연도 정부재무제표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회계처리지침 및 계정과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며, 2017년까지 공공부문 회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증제도 개발 및 전문기관 설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 라오스- 공공회계제도 개혁 및 현금주의 IPSAS 채택

라오스는 현재 국가회계법 및 감사법을 개정 중에 있다. 정부는 민간부문 및 공기업을 위한 기업회계기준(법령)을 이미 승인하였으며 재무부는 IPSAS 도입을 권고하는 공공회계기준(안)(법령)을 2013년 4월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정보관리시스템(Treasu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현금주의 IPSAS에 기반한 정부재무제표를 먼저 작성할 예정이며 발생주의 IPSAS의 완전 도입에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라오스는 세계은행의 ‘고용과 성장에 관한 다자기금(Multi Donor Trust Fund)’에 의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2013년 4월까지 공공회계제도 개혁 로드맵 및 상세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라오스는 공공부문 전체를 포괄하는 리더십과 협력이 공공회계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재무부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핵심관계자 실무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국제적 전문성을 가진 회계사가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집중적인 역량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3 베트남- 현금주의 IPSAS에 기반한 베트남회계기준 제정

베트남은 1990년대에 회계제도 개혁을 통하여 2003년에 회계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26개의 베트남회계기준(VAS: Vietnam Accounting Standards)을 제정하였다. 베트남의 국가회계법령 체계는 베트남회계법 이하 베트남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앙정부 및 모든 지방정부에 현금주의 IPSAS 도입 완료를 목표로 사전 연구조사 및 준비를 실시하여 왔다. 베트남 회계처리 관행과 달리 현금주의 IPSAS는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 현금 유·출입을 표시하고, 해외원조 수령액 및 상환액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등 차이점이 있다.

베트남 정부는 현금주의 IPSAS로 전환하기 위하여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동 로드맵에 따르면, 현금주의 IPSAS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무부 등 일부 부처에 우선 적용한 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중앙정부 부처,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지방정부에 적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는 중앙정부 및 모든 지방정부, 공기업을 포함하여 작성한 2017회계연

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2018년 8월까지 재무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4 인도네시아- 발생주의 완전 전환을 목표로 ‘발생주의 지향적 현금주의’ 시행

인도네시아는 재정관리 개혁의 일환으로 2003년에 재정관리 개혁 백서를 발표한 이래 공공부문 회계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는 정부회계기준의 제정 및 CoA(Chart of Accounts)의 정비 등을 포함하며, 현재는 향후 발생주의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발생주의 지향적 현금주의(CTA: Cash Towards Accrual)’를 적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3년 재정개혁 이전에는 공공부문 회계기준이 미비하였고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제도를 사용하였으나 이후 발생주의 회계제도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자 2003년부터 CTA를 적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CTA를 이행하기 위해 2005년 인도네시아 정부회계기준위원회(Indonesian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를 설립하였으며, IPSAS 및 GASB(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준을 참고하여 CTA 정부회계기준을 제정·공표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적용하고 있다. 2004회계연도에 CTA 기준 국가재무제표를 최초 작성한 후 현재까지 매년 작성 중에 있다.

CTA 정부회계기준은 개념기준서 및 11개의 기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현금주의 방식과는 달리 현금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 방식으로 거래를 기록한다. 즉, 수입 및 지출은 현금주의에 따르며 자산·부채 및 자본은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CTA 정부회계기준은 2015년까지 적용되며, 그 이후 발생주의 정부회계기준이 완전 도입되어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적용될 예정이다. 자산·부채 및 자본만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한 CTA 기준과 달리, 발생주의 정부회계기준은 자산·부채 및 자본뿐만 아니라 수입과 지출 모두 발생주의에 기초하여 인식하도록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발생주의 결산과는 별도로 현금주의 예산을 유지할 것이며, 발생주의 결산과 현금주의 예산을 통합하는 통합재무관리정보시스템(IFMIS)을 통해 거래의 기록 및 재무제표 작성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1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 공공회계기준 개념체계 공개초안 발표

11월 7일,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공공부문 실체의 일반목적 재무보고에 적용할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를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두 건의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발표하여 의견수렴 중에 있다. IPSASB는 개념체계의 마련을 지속적인 핵심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향후 국제적인 공공부문 회계기준의 확립을 위한 근본으로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개념체계 공개초안 제2호 “공공부문 실체의 일반목적 재무보고에 관한 개념체계: 재무제표 구성요소 및 인식(Conceptual Framework for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Elements and Recognition in Financial Statements)”은 2010년에 발간된 검토보고서(Consultation Paper)의 주요사안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제시한다. 재무제표 구성요소는 재무제표 작성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공개초안 제2호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이연유입, 이연유출, 소유주출연금, 소유주배당금 등 8개 항목에 대해 정의한다. 또한 이연유입과 이연유출을 재무제표 구성요소로 분류하여 특정 회기의 현금흐름을 기타 회기의 현금흐름과 구분한다. 이연유·출입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특정 회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흐름에 적용되며, 비교환거래로 제한된다. 동 공개초안은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한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루고 있다.

개념체계 공개초안 제3호 “재무제표의 자산 및 부채 인식방법(Measurement of Assets and Liabilities in Financial Statements)”은 IPSASB가 IPSAS의 측정기준을 선정할 때 참고해야 하는 개념을 제시한다. 동 공개초안은 재무보고의 목적인 의사결정 및 회계책임성을 충족하는 측정기준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공부문은 운영목적의 자산을 다수 보유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취득 원가를 반영하고 있는 장부가액이 측정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국민 혹은 기타 수혜자에 대한 재화 및 용역 제공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부채에 대한 적절한 측정기준은 주로 이행원가가 될 것이다. 즉, 부채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현재의 원가로 측정된다.

안드레아 버그먼(Andreas Bergmann) IPSASB 의장은 “개념체계는 IPSASB의 지속적인 우선과제로서, 최종 확정된 개념체계는 앞으로 수년간 IPSASB의 기준 제정 활동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

고 밝히며, “이번 공개초안들은 재무제표의 핵심요소인 구성요소 및 적정 측정기준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다. IPSASB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번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언급했다.

2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IPSASB),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을 지지하는 IMF 보고서 환영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을 지지하는 IMF의 “*재정투명성, 회계책임성 및 리스크(Fiscal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Risk)*” 보고서를 환영했다. IPSAS는 독립적인 기준 제정기구인 IPSASB가 제정한, 발생주의에 기초한 회계기준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많은 정부 및 국제기구가 이미 IPSAS를 채택하였으며, IPSAS 도입을 준비 중인 국가 및 기관도 있다.

IPSASB는 각국 정부가 재무보고를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IPSASB는 1997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서 및 현금주의 기준서를 제정하여 발생주의 회계로 나아가려는 국가를 지원해왔다. IPSAS는 공공재정의 투명성 및 회계책임성을 제고하고 정부 채무 및 부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개정되어 왔다.

IMF 보고서는 정부의 재무보고 및 회계책임성에 대한 적절성 확보가 미비한 실태와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에 내재되어 있는 상당 수준의 리스크를 조명하고 있다.

“*재정투명성, 회계책임성 및 리스크*”는 IPSASB가 지원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조치에도 동의하고 있다.

- 각 사법관할구역(국가 혹은 주)의 회계기준 간 차이 및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투명성기준 개선
- 정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체(중앙은행, 공공실체, 일반정부 범주 외 기업 포함)를 재정전망, 예산편성 및 재무보고 대상에 포함
- 감사 및 인증 등 기준 준수 평가수단을 이용한 각국의 재정투명성기준 준수여부 평가
- 재정투명성 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재정투명성이 장기 재정건전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전망, 예산편성 및 재무보고 관련

기준서 및 방법론 간 연계 강화

- 전 국가, 특히 개도국과 신흥국의 재정투명성과 공공부문 재무관리 강화

안드레아 버그먼(Andreas Bergmann) IPSASB 의장은 회계기준과 통계체계가 정합화되어야 한다는 IMF의 의견에 IPSASB도 동의하며, 투명성과 회계책임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정부가 명료한 지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IPSASB는 IPSAS 등 국제기준의 준수를 감시 및 강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IPSASB 의장은 또한 “IMF 보고서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을 개선하고 정부의 대국민 회계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투명한 재무보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의 국채위기에서 확인했듯이,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는 민주주의적 통제력을 상실하고 사회적 동요를 겪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및 미래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2012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변동사항 및 유의사항

김 명 남 선임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재무통계부
Tel_02,3149,7572 / e-mail_ ssoren@kicpa.or.kr

01 머리말

IMF 금융위기 이후, 기업·금융·노동·공공 부문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7년 10월 국가회계법의 제정으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식적으로 법령화 하고, 2008년 12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의 개정을 통해 결산보고서의 체계적 정비를 완료하였다.

그 후 국가재정법 부칙에 따라 2년간 시범 기간(2009 및 2010회계연도)을 거쳐 국가재무제표와 중앙관서별 재무제표는 2012년 4월 10일 감사원에 제출되었으며, 감사원의 결산검사결과를 반영한 국가재무제표가 국가결산보고서에 최초로 포함되어 2012년 5월 31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통한 국가재무제표가 국회에 최초로 제출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회계실체에서는 국가회계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및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국가 회계처리지침의 개정, dBrain 시스템 개선 등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이하에서는 ‘2012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변동사항 및 추진경과’와 함께 ‘2012회계연도 재무결산의 주요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국가 회계처리지침 개정

제 18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12.11.27)에서는 국가 회계처리지침 중 개정 소요가 발생한 1개 회계준칙 및 8개 회계처리지침에 대한 개정 내용을 결정하였다. 이번 개정에는 경찰청·해양경찰청·법무부 등이 보유한 총기류 및 탄약 등에 대한 표시, 통합재무제표 작성 시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수익·비용 회계처리, 학자금대여금 등에 대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설정 등이 포함되었다.

시스템 개선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3회계연도부터 적용 예정인 수입금 환급금 회계처리, 학자금대여금 등의 융자회계준칙 적용을 제외하고 2012회계연도 재무결산 시 개정된 국가 회계처리지침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된 지침 목록 및 개정사항은 국가회계기준센터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에서 참고할 수 있다.

〈국가 회계처리지침 주요 개정사항〉

구 분		개정내용	적용연도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전비품 회계처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비품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를 적용하도록 하고, 경찰청·해양경찰청·법무부 등이 보유한 총기류 및 탄약 등의 일반유형자산은 '기타일반유형자산' 중 '치안유지자산'으로 관리하도록 수정	2012년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대손실적률법 이외에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 수정	2012년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수입금 환급금 회계처리	수입금을 환급할 경우 재정운영순원가의 기타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현행 규정을 국고금관리법 등을 준용하여 수입금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도록 지침 수정	2013년
순자산변동표 및 국세징수활동표 회계처리지침			
원가계산지침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의 비용구분 기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중 복리후생비 성격을 가진 공무원 연금부담금, 군인연금부담금, 건강보험국가부담금은 프로그램원가 혹은 관리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도록 지침 보완	2012년
통합재무제표 작성지침	국고금회계 이자수익 등의 표시방안	국고금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을 국가재정운영표 작성 시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영순원가에 합산하여 표시하도록 문구 신설	2012년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 회계처리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자산·부채와 수익·비용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제고	2012년
융자회계준칙 및 융자회계처리지침	학자금대여금 등의 융자회계준칙 적용	중앙관서 및 기관관리주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학자금대여금 등에 대해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산정하여 실질가치로 평가하도록 적용 제외규정 삭제	2013년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	연금충당부채 할인율 산출방식 명시	연금지급시기에 대응되는 만기구조를 갖는 국고채가 없는 경우 보간법으로 할인율을 추정하도록 지침 수정	2012년

2 dBrain 시스템 개선

2012년 5월부터 dBrain 재무결산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국가회계기준센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단은 dBrain 시스템 개선 TFT를 구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시스템 개선 요청 사항 뿐 아니라 감사원의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 검사결과와 국회 결산심사 결과로 제기되었던 지적사항 중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여 재무결산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중 내부거래 제거 시 수동대사, 거래처 코드의 중복생성 방지, 중앙관서별 계정과목 통제 및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검토 등의 시스템 기능이 추가되어 재무결산 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회계처리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3 2012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수행

2012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은 dBrain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계(일반회계 45개, 특별회계 13개) 및 기금(28개)에서 중간점검 대상 기간(2012.1.1~2012.9.30)동안 발생한 거래를 대상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및 국회 제출 일정 준수를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들 국가회계실체들은 내부거래 제거, 계정과목 명세서 검토, 계정과목 선택오류 검토, 자산대장과 재무제표 대사, 감가상각 기본정보 검토 등 주요 항목에 대하여 중간점검을 수행하고 중간점검결과보고서를 2012년 11월 2일까지 제출하였다. dBrain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회계실체의 경우는 내부거래 제거 등 필수 중간점검 항목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4 결산작성지침 개정

「2012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에는 결산의 효율성·정합성 제고를 위해 국회지적사항 등과 국가회계처리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기금, 정부기업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재무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은 「결산작성지침(III)(중앙관서 재무결산용)」으로 분리하여 별도 마련하였다.

이번 결산작성지침은 퇴직급여충당부채 차감항목의 표시, 용자사업 관련 주식의 신설 등 결산보고서 작성 양식이 변경되었으며, 전기오류수정손익 내역 확인, 내부거래 수동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결산서 작성방법 메뉴가 dBrain 시스템에 추가되었다.

〈결산작성지침 주요 개정사항〉

구 분	개정내용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 금융리스부채 추가
3. 장기충당부채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보험예치금, 국민연금전환금, 퇴직연금운용자산 추가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① 계류 중인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 •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손실추정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경우에 그 내역을 기술하도록 수정
주석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 중대한 오류수정, 중대하지 않은 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수정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세입·세출외거래 •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 관련 예시 추가 • 조달특별회계의 회전자금 관련 예시 및 주요정보 양식 추가 (4) 용자사업 • 용자사업 관련 주식 신설 (5) 사회보험사업 • 보험충당부채 주식에서 분리한 사회보험 관련 내용을 추가
부속 명세서 3. 단기투자증권명세서 4. 장기투자증권명세서	• 투자증권평가손익과 투자증권감액손실이 당기말과 전기말 금액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양식 수정 등
7. 일반유형자산명세서	3)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 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표 수정

5 국가회계 교육 실시

결산 담당 공무원의 국가회계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과 재무결산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8차례에 걸쳐 통합 및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통합 교육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담당 공무원과 관련 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생주의 회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성화 교육은 징수결의·원인행위·지출결의·계약 등 현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지출관·수입관·관서운영경비담당관·국유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 등을 대상으로 업무 특성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전국 재무관, 지출관 등 dBrain 사용자를 대상으로 발생주의 회계 기본 내용과 결산작업

시 주요 오류 사례 및 처리방법 위주의 국가회계 기본교육과정과 중앙관서 및 기관별로 수행된 발생주의 회계 전반에 대한 재무결산 교육을 상시로 실시하였다.

03 2012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1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국가재정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결산 개요,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이루어진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한다.

중앙관서의 원활한 통합 재무결산 작업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 및 결산작성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을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예산의 집행실적은 1월 28일까지 마감하고, 기금 및 정부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 포함)의 결산은 2월 12일(예정)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등으로 정부결산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재정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결산주체별 결산보고서 제출기한〉

구 분	2013.2.12일	2.24일(예정)	제출처
- 기금관리주체 - 현금주의 결산서 - 발생주의 결산서	→	→	소관중앙관서의 장 " , 기획재정부
• 정부기업특별회계	→	→	" , 기획재정부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	" , 기획재정부
• 중앙관서별 채권결산	→	→	" , 기획재정부
• 중앙관서별 채무결산	→	→	" , 기획재정부
- 중앙관서의 장 - 현금주의 결산서 - 발생주의 결산서	→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 ———→ : 통합 재무결산 작성을 위하여 2.12일까지 마감하고 2.24일(예정)까지 제출

2 통합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 제거

내부거래란 국가와 중앙관서 통합재무제표 작성 시 제거 하는 회계실체 간의 거래를 말한다. 즉,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는 회계·기금의 재무제표를 통합한 후 회계·기금간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재무제표는 모든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통합한 후 중앙관서간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다.

이렇듯 내부거래 제거는 국가와 중앙관서 재무결산에는 영향을 미치므로, 각 회계실체는 기금 및 정부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 포함)의 수정전시산표 마감 전에 내부거래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내부거래는 dBrain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제거되거나 결산담당자가 수동으로 제거할 수 있다.

3 부서간 간접원가 배부

부서간 간접원가와 관련하여 예산을 집행한 회계 등은 간접원가를 계산하여 타 회계 등에 배부하여야 하고, 효익을 제공받은 회계 등은 배부 받은 간접원가를 재정운영표에 인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에서 집행되는 공무원연금 고용주부담금, 국방부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에 대해 지급하는 인건비와 군인연금 고용주부담금, 보건복지부가 집행한 건강보험국가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등은 배부 받은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운영결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내부거래지출과 보건의출 중 복리후생비 성격을 가진 공무원연금부담금, 군인연금부담금, 건강보험국가부담금의 경우 프로그램원가 혹은 관리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다.

4 폐지 또는 타 부처로 이관된 회계실체의 회계처리

폐지 또는 타 부처로 이관된 회계실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순자산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순자산 조정 항목으로만 제거하지 않고, 순자산 구성 항목인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 항목으로 각각 제거하여 폐지 또는 이관 후 순자산 구성 항목의 잔액이 모두 '0'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재무결산의 주요 변동사항 및 추진경과’와 ‘2012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다.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라 작성된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상태 또는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가 국회, 정책결정자, 일반국민 및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적시 정보제공과 함께 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가회계기준센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단 뿐 아니라 각 회계·기금 및 중앙관서 사업담당자, 결산담당자 등 국가결산과 관련된 모든 인력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관서 재무결산 일정 준수와 관련하여 담당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필요하고, 2012회계연도 개정된 국가회계처리지침, dBrain 시스템 개선사항 등 2012회계연도 재무결산의 주요 변동사항들을 숙지하여 재무결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지사항

김 상 노 부장 _ 국가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부장
Tel_02,3149,7551 / e-mail_ alcaz@kicpa.or.kr



뉴스레터 구독 신청 안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에 회원가입 또는 ② 02-3149-7560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결산 실무지침서 발간 안내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는 2012회계연도 재무결산을 위한 실무지침서(결산담당자 업무매뉴얼, 계정과목연계표, 계정과목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인쇄본이 필요한 경우 센터 행정팀(02-3149-7560)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실비(인쇄비, 배송비) 부담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신청마감: '13.1.16)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에는 국가회계관련 뉴스, 발간자료, 기준 및 법령, 세미나 및 교육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소 국가회계에 관하여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할

수 있는 코너와 FAQ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뉴스레터, 정부회계저널, 알기쉬운 국가회계기준 등의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국가회계 및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 제안

국가회계제도 및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을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의 [의견제안] 메뉴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가 재정부문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



-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 국가회계기준의 충실한 이행 방안 마련
 - 재무제표 공시자료 유용성 제고 방안 마련
 - 체계적인 국가회계기준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수행
-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도 제고
 - 원가정보의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한 방안 마련
 -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재정지표 개발
 - 각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자료 제공
- 국내외 회계환경변화 대응
 - 외국정부회계제도(미국, 영국, IPSAS 등) 동향 분석 및 연구
 - 공공부문(지방, 공공기관) 회계환경 동향 분석 및 연구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공감대 형성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선도합니다.

NASC 기획재정부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100-74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8층 Tel_ 02.3149.7560 Fax_ 02.3149.7570 Homepage_www.nasc.or.kr

| 위탁운영기관 | **KICPA** 한국공인회계사회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2013년 1월 1일 발행